

투데이 칼럼

이북도민 체육대회

정 부는 1949년부터 실행된 중심으로 구성된 이북도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이북 5도,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의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실행민들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본단의 세월이 길어지며 이제는 여러 세대가 화합의 마음을 나누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어느 커다란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북도민 체육대회였다. 각 지역의 응원 구호가 적힌 현수막 아래,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개회식이 시작되자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운동장에 입장했다. 지난해 우승기를 차지했던 황해도 선수단은 풍물놀이패를 앞세워 분위기를 북돋웠다. 체육대회는 이북도민들에게 축제의 한마당으로 여겨진다. 이북 지역의 5개 도를 비롯해 경기, 강원 미수복 지역에 포함된 13개 시, 84개 군을 고향으로 둔 실행민 1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983년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북도민들은 이곳에 참여해서 함께 실행의 아픔을 나누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열변 응원을 펼친다. 오래간만에 북녘 '고향'을 힘껏 외쳐보기도 한다. 운동장에서는 각 도의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우승 결의를 다진다. 각 지역의 선수들이 맞붙은 모래주머니 던지기 경기도 있다. 주어진 모래주머니를 던져서 빈 통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통 안에 모래주머니를 평중시킬 때마다 환호성이 터진다. 경기 성적이 저조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2010년 남한에 온 어느 탈북민도 실행민이라는 한마음으로 경기를 지냈다. 그는 북한 이탈 주

민이란 결국 실행민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화합의 장이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황해도 은율군에서 태어난 어느 두 할아버지는 무척 반갑다. 이들은 고향에서 중학교 때 만났다. 전부에도 같이 구월산 유격군에 편입돼서 같이 싸웠다. 1·4 후퇴 때 인민군한테 밀려서 섬으로 들어왔으나 섬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 황해도 부근 섬에 상륙작전을 했다. 두 사람은 고향 동기가자. 6.25 전쟁 당시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전우이기도 하다.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은 연고가 없는 남쪽 땅에서 큰 힘이 되었다. 실행민들은 고향의 나이에도 체육대회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들을 위로하는 듯 이북 오도 선수들은 줄다리기를 경기에서도 전력투구에 나섰다.

분단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떠나온 고향의 모습을 기억하는 1세대 실행민들이 많지는 않다. 4세대까지 이어진 실행민 가족들은 이곳에서 고향 사람들과 소통하고 통일 꿈 나누고 있다. 선수들은 줄다리기를 경기에서도 고향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은 북한의 지명을 친숙하게 외치며 응원을 이어간다. 실행민 1세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 자리를 후손들이 채워나가고 있었다. 손녀와 체육대회에 방문한 어느 실행민 2세대는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든다. 할아버지의 설명에도 손녀에게 북한은 아직 생소한 곳이다. 줄다리기에 우승한 기쁨을 나누는 강원 미수복 지역의 선수단도 친정 나들이와 같은 하루를 만들어 갔다. 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계주가 시작되고, 바쁨을 이어받으며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 나간다. 한 해 한 해가 지남수록 희미해지는 북녘의 그리움이다. 이북도민들에게 고향의 기억을 이어가는 일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실행민들은 언젠가는 남북의 선수단이 이 운동장에 함께 서서 경기를 하는 날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사설

미국 민주주의 자멸 징후

미국의 민주공화정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이런 가운데 정치 체제도 오래된 것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지식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때문이다. 248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그의 불법행위, 선거운동 방식, 지지자들의 동기, 미국 정치의 방향을 고려하면 위기론이 충분히 있다.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를 닮은 데가 있다. 히틀러는 유대인 혐오를, 트럼프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적극 이용했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그의 명성을 키워줬다. 트럼프도 1·6 의사당 난동이라는 내란이라고 볼 만한 사건을 섰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 시도는 지지자들이 봉치고 선거자금이 물리

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그가 독일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보인 충성심을 부러워했다고 증언했다. 나치즘은 사회적 열등감을 국가적 열등감에 투영했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반감과 지위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를 통해 표출했다. 일론 머스크는 선거 때 하루 한명씩 추첨해 유권자들에게 100만달러(약 14억원)씩 뿌렸다. 고대 로마 정치인들은 민중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다. 민주정치의 중우정치로의 타락을 보여주는 징후다.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다시 세웠다는 점이다.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생겼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

독자제언

골든타임 4분을 잡아라

겨울철 기온 강화로 인하여 급격한 온도변화에 적응을 위해 우리 몸은 변화를 시작한다.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체온 방출을 막고, 몸의 팽창 등으로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혈압 및 맥박도 동시에 상승되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과 압력 상승이 심장에 무리를 주어 예기치 못한 심근경색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오게 한다. 특히,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지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장지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외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뇌와 각 장기가 손상을 입지 않고, 생존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더더욱 심폐소생술(CPR)을 평소 알아두고 연습해 두는 것이 초기대응에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 및 의식을 점검해야 한다. 응급처치하기에 안전한 장소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험한 장소

일 경우 이동시켜서 조치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맥박이나 가슴 뎀박이를 확인하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서 의식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과 동시에 주변 사람이 있다면 명확히 지목하여 119에 신고요청을 병행해야 한다. 확인했지만 의식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 압박의 위치는 양 젖꼭지 중앙이 아닌 요구조자의 가슴뼈 중앙에서 이랫부분(검상돌기)의 절반 위치를 기준으로 양 손을 깎지끼고 두손의 바닥의 평평한 부분을 이용하여 압박을 1분에 100~120회의 속도로 약 5~6cm의 깊이를 누르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구조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므로 주변 사람과 교대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실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평소 배우고 연습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살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우리 모두 심폐소생술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틈틈이 배워, 골든타임 4분 안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자! 김경민 무주경찰서 경비인보과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국기 들고 거리 쏟아져 나온 조지아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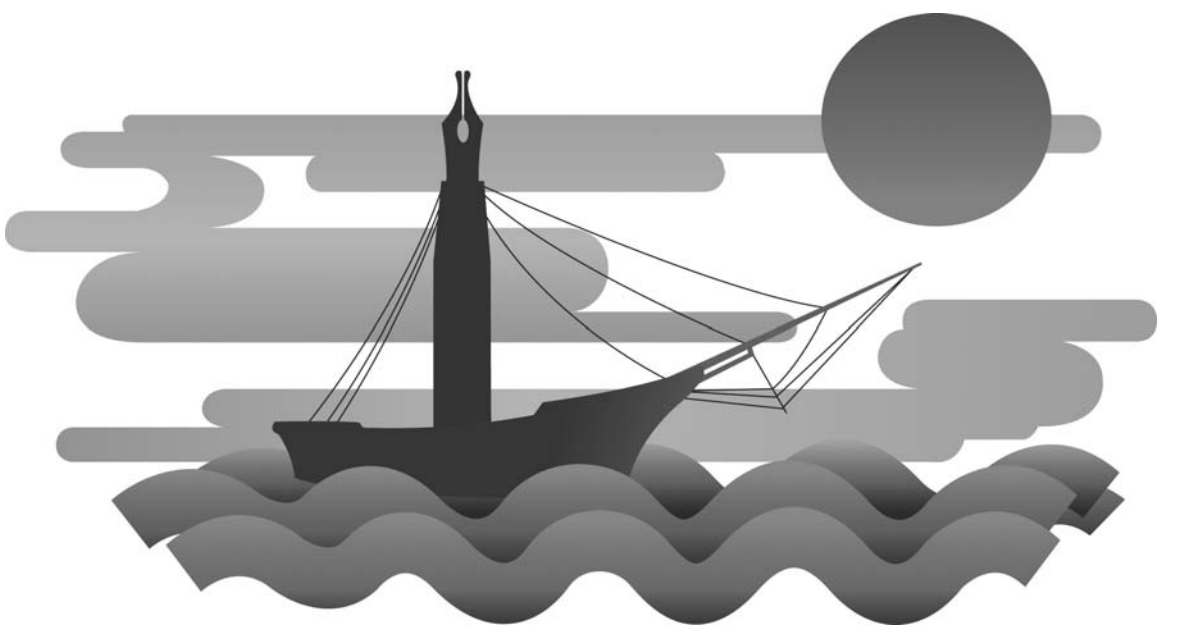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11월 28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이라클리 코바하제 총리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단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의회 앞 거리로 몰려들고 있다. 친러 성향의 조지아 정부가 EU 가입 협상을 2028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몰린 쇼핑객들



11월 28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커머스의 시타델 아울렛 상점에서 조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에 대형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로 최근에는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일부 상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